스마트·고품질…전남농업 방향 제시

도, 장성서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 대상 수여·유공자 표창
시군 농정업무 성과 공유도

전남도가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과 시장개방의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케이(K)-미식 벨트 조성 등 농업의 스마트화·고품질화·브랜드화에 힘쓰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전남 농업 미래상과 관련 농업인들과 공유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1월 11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전남도와 장성군이 주최하고 (사)전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한종 장성군수, 유관기관장, 농축임업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올 한해 전남 농업과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의 노고와 성공사례를 담은 주제영상 시청, 전남도 농업인 대상 수여, 유공자 표창, 농정업무 평가 우수 시군 시상, 주제공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영예의 농업인 대상에는 고소득 쌀 분야 최정현씨 등 6명이 선정됐다. 한국후계농업인연합회 박기태씨, 황금농장김치 대표 박춘식씨가 대통령 표창 등 1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으며, 한국여성농업인광양연합회 김선옥씨 등 15명이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올해 전남도 주관 시·군 농정업무 평가에서는 해남군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영광군과 나주시가 최우수상, 함평·장성·고흥·화순·담양군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악인 김산옥·임재현 씨가 농업 발전에 헌신한 농업인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담은 창극 공연을 선보여 감동을 전했다.

공연에 이어 참석자 모두가 참여한 미래 전남농업의 방향성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전남이 이끈다'는 야심찬 퍼포먼스로 대미를 장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유례없는 극한 기후와 가축전염병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농촌을 지키고 계시는 30만 전남 농업인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중학생 80명 영국·호주 연수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대상자 선정

전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전남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창조적 역량을 갖춘 미래 핵심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대상자를 선정했다.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는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 속에 349명이 지원해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기시험을 통해 면접 대상자 123명을 1차 선발했으며, 면접심사 등을 통해 사회적배려 대상자 17명을 포함한 총 80명을 선발했다. 연수 국가는 최종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희망연수국가를 우선 배정했다.

올해는 연수 국가를 영국까지 확대하고, 연수생 규모를 30명으로 늘려 영국과 호주에 각 40명을 배정했다. 시군별로 1명씩 배정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했다. 연수생들은 영국 레드브릿지 커뮤니티스쿨(Redbridge Community School)과 더 롬지 스쿨(The Romsey School), 호주 세인트존스 앵글리칸컬리지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에 참여한다. 또 스포츠 및 예술(esol)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예정이다. 예술은 타 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수업이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연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호주는 오는 28일, 영국은 30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수 준비 및 유의사항, 홈스테이, 현지생활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군별 1명씩 우선 배정해 어느 지역도 빠지는 곳이 없도록 했다"며 "이번 연수가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고위직 50여명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2차 피해 방지 강연

전남도가 지난 10일 도청 왕인실에서 전남도청 고위직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대상으로 맞춤형 별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박미애 가치성장연구소장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행동하는 고위직'이라는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 관점 전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노력,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방안 등 내용으로 강연했다. 전남도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인지 시 기관장,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직장 동료 각자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김장배추 작목 전환 지원 수급 안정

해남·진도 등 11개 시·군에 14억원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김장용 배추 적정 생산을 유도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추 대체작목 전환을 지원한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김장 문화 변화, 1인당 김치 소비량이 2000년 74.2kg에서 2020년 32.2kg로 감소하는 반면, 전국 배추(가을) 재배면적은 매년 1만4000여ha 수준을 유지해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남의 배추(가을) 재배면적은 3100ha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대체작목 전환을 위해 지난 8~9월 신청을 받은 해남과 진도 등 11개 시·군 317ha에 도비 4억원을 포함, 최종 사업비 총 14억원을 확정했다.

시·군별로는 주산지인 해남이 가장 많은 264ha, 영암 17ha, 진도 15ha 순이다. 유형별로는 휴경이 103ha로 가장 많고, 농협과 재배계약이 체결된 보리 47ha, 밀 35ha, 유채 등 기타 작물이 132ha다.

지원 대상은 2021~2022년 배추를 재배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금은 11월 중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휴경 또는 배추가 아닌 지원 대상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ha당 450만원을 지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경우 53억원을 투입해 배추 359ha를 산지 폐기한 사례를 고려해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작목 전환을 지원하게 됐다"며 "작목 전환 뿐 아니라 앞으로 전남산 절임배추와 김장김치 구매협약 체결, 김장대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12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쓰레기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전남도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산림 인접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총 51건의 산불이 발생,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하고 있다. 원인별로는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17건(33%)이 가장 높았으며,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었다.

특히 가을철에는 입산자 부주의와 수확철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따른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 10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체력검정, 신체검사서 등 공모과정을 거쳐 1034명을 선발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0명 내외로 조를 편성해 운영하며 진화대별 임무가 부여된다.

우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산림 41만2000ha와 등산로 712㎞ 구간을 입산 통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취약지별로 분산 배치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산림 인접지 100m 내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나, 주택서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봄철 기간 98건을 적발해 2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산불 예방 활동뿐 아니라 대형산불에 대비해 임차 헬기 8대와 드론 38대, 5만4000점의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했다. 지난 10월에는 보성군과 해남군에서 소방, 산림청 소속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2회에 걸친 산불 진화 합동훈련으로 실전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오는 12월에는 산불 총력 대응을 위해 전남도를 비롯한 소방재난본부, 산림청 소속기관, 경찰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별 산불 대응·대비 전략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협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리더 22일까지 모집

20명…활동 홍보·공유 메신저

전남도가 오는 22일까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홍보와 정보 공유, 지원 활동을 펼칠 서포터즈 리더 20명을 모집한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남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활동을 펼치고 있다. 1년 만에 가입자가 43만명에 이른다.

이번에 선발된 리더는 4개월 간 서포터즈와 관련된 행사와 콘텐츠를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하고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활동하게 된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에 가입한 사람 중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namdo2.jeonnam.go.kr/jnsupports/)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 리더는 오는 12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의 1주년을 기념하는 응원대회에서 위촉하고, 전남도 주관 축제·행사 우선 초청 특전과 활동비 일부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서포터즈 리더는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팔로워 등에게 도정 정보를 빠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리더로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많은 분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